Stage 11 Hard To Please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 로드니는 성격이 나쁜 '매력적인 찻집'의 주인들을 돕기 위해 두 개의 기계를 발명했어요. 로드니는 그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번 빵을 팔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Talking Points **(이야기해 볼 부분)**	- 앞표지를 보고 제목을 함께 읽으세요. 뒤표지의 글을 읽고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일지 물어보세요. - 6쪽과 7쪽에 있는 '매력적인 찻집'의 척과 칙 찰리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그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어떤 분위기의 사람들일까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 척과 칙의 대사를 번갈아 가며 읽으며, 25쪽에서 30쪽까지 함께 큰 소리로 읽으세요. 누가 로드니 역을 할지 보드니 씨 역을 할지도 고르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고 나서)**	-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 31쪽의 그림을 보세요. 이제는 웃음이 가득한 찰스 형제의 '매력적인 찻집'의 새 이름으로 무엇이 좋을지 이야기해보세요. - 아이에게 로드니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읽었는지 물어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어느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이유도 물어보세요.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맛있는 번 빵, 좋은 번 빵 제빵사 보드니 씨는 차에 번 빵과 케이크를 싣느라 분주했어요. "로드니! 어디에 있니?" 그가 불렀어요. 로드니는 자신의 방에 있었어요. 그는 반쯤 잠들어 있었고, 반쯤은 깨 있었어요. 로드니는 벽을 보며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드니 씨의 번 빵을 최고로 만들 기발한 무언가 혹은 차 안에 빵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끝내주는 무언가를 말이에요.
p4	"로드니!" 로드니는 펄떡 일어서, 계단을 덜컹거리며 내려왔어요. "로드니, 로드니, 잊어버렸니? 오늘이 찰스 형제의 '매력적인 찻집'에 번 빵을 가져다주는 날이잖니. 만약 그들이 우리 빵을 좋아한다면 우리 대신 빵을 팔아 줄 거야." 보드니 씨가 말했어요.
p5	"그들은 좋아하게 될 거에요, 아빠. 나는 그렇게 될 걸 알아요." 로드니가 말했어요. 그러나 보드니 씨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찰스 형제는 만족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모두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드니 씨는 묵묵히 나머지의 번 빵을 차 뒤 쪽에 밀어 넣고 로드니를 앞쪽에 밀어 넣었어요. 그다음 차를 출발시켜 길을 나섰어요.
p6	척 찰스는 '매력적인 찻집'의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척은 시계를 보고 발로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고 긴 얼굴을 가졌어요. 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웃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p7	칙 찰스는 찻집 안에서 지저분한 낡은 테이블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어요. 그는 고갤 들어 보드니 씨를 봤어요. 하지만 웃지 않았어요. 그는 절대 웃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절대 웃어본 적이 없어요. 보드니 씨는 잘 부풀어 오른 번 빵 두 개를 두 접시에 담았어요. 척은 야금야금 먹었고, 칙은 부스러기를 씹었어요. 그들은 모두 슬프거나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p8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척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가격이 얼마나 하지?" 칙이 물었어요. 보드니 씨는 빵에 가격을 붙여줬어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맛있는 번 빵, 좋은 번 빵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사들일 여유가 없어. 우리는 차를 사는데 돈을 써야 하고, 가게를 위해 돈을 써야 하고, 의자나 테이블에 돈을 쓰고, 그리고 깨끗이 유지하는데 돈을 써야 한단 말이지." 불쌍한 보드니 씨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찰스 형제는 보드니 씨의 번 빵을 팔지 않을 거에요.
p9	"그 점은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로드니가 말했어요.

	"어떻게?" 칙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로드니는 사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서둘러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아이디어가 머리 속에 떠올랐어요. "제가 테이블을 청소해 주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척이 칙을 보며 비굴한 표정을 지었어요. 칙은 비굴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좋아,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한번 봐 보지."
p10	2. 윙윙 1호와 쌀 푸딩 로드니는 빵집에 돌아가서, 곧장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기발하고 끝내주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며칠간 자신을 방에 가둬두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서투르게 만지작거렸어요. 쾅하는 소리와 철커덕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자 그는 문을 열어젖혔어요.
p11	"작동해요! 작동해요! 와서 봐요!" 그는 외쳤어요. 보드니 씨가 보러 왔어요. 그는 바퀴로 달린 쓰레기통을 볼 수 있었어요. 몇몇 전선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긴 팔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끝에 젖은 스펀지를 쥐고 있었어요. 로드니가 그것을 작동시키자 팔이 좌우로 휙휙 움직였어요. "나는 이것을 '윙윙 1호'라고 불러야겠어요." 로드니가 행복하게 말했어요.
p12	다음 날 그들은 윙윙 1호를 차에 태우고 '매력적인 찻집'에 가져갔어요. 척과 칙은 낡고 닳아버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팔짱을 끼고 음침한 표정을 지었어요. "놀라세요." 로드니와 보드니는 말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켰어요.
p13	칙과 척은 놀랐어요. 그 기계가 요동치면서 덜컥거렸고, 한 더러운 테이블의 쌀 푸딩 접시를 치워버린 것이었어요. 반은 척의 무릎에, 나머지 반은 칙의 무릎으로 떨어졌어요. 크게 사고를 친 거에요. "이 멍청이가! 당장 우리 바지를 봐봐." 칙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꽤 잘 작동했어요." 로드니가 말했어요. "나가! 나가!" 척이 소리쳤어요.
p14	빵집에 돌아와서 로드니는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생각해보았어요. 그는 쌀 푸딩에 대해 생각했고 척과 칙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다음 그는 그들이 앉아 있었던 낡아빠진 두 개의 낡고 닳아버린 의자와 더러웠던 모든 테이블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을 방에 가두고 전보다 더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어요. 한 주가 지나갔어요. 보드니 씨는 방에서 나오는 수많은 쾅 소리와 망치질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p15	그리고 쾅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곳엔 여러 가지 색의 전구가 위에 달려 있고, 아래엔 바퀴가 달려 있는 커다란 양철통이 서 있었어요. 전선 줄이 옆쪽에서 엉망인 채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세 개의 긴 강철 팔 끝엔 세 개의 붓이 쥐어져 있었어요. 큰 붓, 중간 붓, 작은 붓 순으로요.

	보드니 씨는 문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는 로드니가 그의 새 기계에 페인트칠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에 한번 스윽, 저기에 한번 쭈욱, 양철통에 한번 쓰윽, 잠옷에 한번 쭈욱. 강철 팔에 스윽, 그의 볼에 쭈욱.
p16	그리고 로드니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다 아빠에게 걸려 넘어졌어요. "이것 보세요." 그는 훌쩍 일어서서 말했어요. 보드니 씨는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아빠, 윙윙 2호, 페인트칠 기계에요. 인사하세요." 윙윙 2호의 위쪽 불빛들이 켜졌다 꺼지면서 반짝였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p17	"찰스 형제는 멋지고 밝은 테이블이 필요해요. 이 기계가 페인트칠을 쉽게 해줄 거에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하면 그대로 해내요. 만약 제가 '테이블을 페-인-트-칠해'라고 말하면 그대로 해낼 거에요." 로드니가 설명했어요. 로드니는 '페인트칠'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말해야 했어요. 만약 제대로 말했다면 윙윙 2호는 바로 페인트칠을 시작했을 거에요. 이 기계의 끝내주게 기발한 점은 바로 로드니의 말소리를 듣고 작동한다는 것이었어요. "한번 시험해볼래요? 윙윙 2호로 내 테이블에 페인트칠해볼까요?"
p18	그러자 큰 붓을 든 강철 팔이 윙윙 거리며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멈춰, 윙윙 2호. 우리는 준비가 안 됐어." 로드니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그러자 기계가 멈췄어요. 마지막 페인트는 윙윙 2호를 칠하는 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로드니는 부엌으로 가서 시럽통을 들고 왔어요. "이건 페인트와 비슷해요. 윙윙 2호는 차이를 구분 못 할 거에요." 로드니가 말했어요. 로드니는 시럽을 양철통 위에 붙고 돌아섰어요.
p19	"윙윙 2호, 테이블 위를 칠해." 로드니가 말했어요. 그러자 기계가 다시 윙윙거리며 팔을 빙빙 돌리기 시작했어요. 빛이 깜빡이면서 붓을 든 팔은 시럽 통에 붓을 담그고 페인트칠을 시작했어요. 페인트칠이 되어야 할 로드니의 테이블 윗면은 시럽으로 가득 칠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도 잔뜩 시럽이 튀겼어요. 로드니와 보드니 씨는 의자 뒤에 쭈그려 앉아서 윙윙 2호가 일을 마치길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시럽을 청소할 기계가 필요하겠구나." 보드니 씨가 신음하며 말했어요.
p20	"하지만 잘 작동했어요. 아빠." 로드니는 노래를 불렀어요. 시럽 웅덩이들은 제쳐놓고 말이에요. "이건 잘 작동해요. 칙과 척을 위해 일을 잘할 거에요. 그리고 그들은 만족하고 우리의 번을 사줄 거에요!" "그렇게 말한다면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러나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브로니 씨는 칙과 척에게 페인트칠 기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게 얼마나 끝내주고 기발한 지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서로 콧소리를 내고 투덜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게 끝내주고 기발하다고요?" 척이 물었어요. "그리고 그게 쌀 푸딩을 쏟진 않겠지요?" 칙이 말했어요. 보드니 씨는 그 기계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좋아요. 가서 보겠어요." 두 형제가 말했어요.
p21	3. 윙윙 2호 일을 나서다. 저녁 7시에 두 형제는 빵집 문을 두드렸어요. 로드니는 그들을 집안으로 맞이하고 가능한 한 상냥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들은 웃음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로드니는 그들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어요. 아버지는 그들을 긴장한 웃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드니는 완전 새것인 빨간 페인트를 준비시켜놨어요.
p22	로드니는 빨간 페인트를 윙윙 2호 위로 붓고, 스위치를 켜고 손가락을 꼬았어요. "윙윙 2호, 테이블을 페인트칠해." 로드니가 말했어요. 큰 붓이 위아래로, 좌우로 휙휙 거리며 움직였어요. 테이블이 빨갛게 빛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페인트칠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자 척의 두 눈은 번쩍 뜨였어요. "놀라워! 이건 우리 찻집이 많은 돈을 절약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척이 말했어요.
p23	그때 교활한 표정이 척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테이블만 칠할 수 있니? 의자도 페인트칠할 수 있니?" 척이 말했어요. "물론이죠. 의자도 칠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드니가 말했어요. 로드니는 의자를 쥐고 페인트칠 기계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윙윙 2호, 의자를 페인트칠해."
p24	윙윙 2호가 웅웅거리며 불을 반짝였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작동하지 않네!" 칙과 척이 동시에 말했어요. "더 많은 명령어가 필요해요. 아직까진 테이블만 되었어요. 윙윙 2호, 다리를 칠해!" 그러자 이번엔 페인트칠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기계는 붓을 작은 붓으로 바꾸고 빠른 속도로 가장 가까이 있는 다리에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p25	"아 이런, 이건 잘못되었어." 그리고 그건 정말 잘못되었어요. 윙윙 2호는 명령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다리에 페인트칠하고 있었어요. 다만, 가장 가까운 다리가 의자 다리가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다리는 척의 다리었어요. 척은 돼지처럼 꽥꽥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윙윙 2호는 그를 쫓아가서 계속 페인트칠을 했어요. 척의 한쪽 발은 이미 빨갛게 칠해졌고, 그 기계는 다른 한쪽 발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뭘 좀 해봐!" 척이 외쳤어요.
p26	"네, 네, 물론이죠. 윙윙 2호, 앉는 부분을 페인트칠해!" 윙윙 2호는 척의 다리를 칠하는 것을 멈추고, 그의 엉덩이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아냐, 아냐, 의자의 앉는 부분 말이야! 이봐, 윙윙 2호. 그만 말썽부려!" 보드니 씨가

	외쳤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늦었어요. 척은 두 다리와 엉덩이가 빨갛게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p27	"이런." 로드니가 말했어요. 로드니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로드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쌕쌕거리고 들썩거리고 켁켁거리는 소리를요. 그는 그게 윙윙 2호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칙의 소리였어요.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다름이 아니라…… 웃고 있었어요. 칙이 웃는 것을 누군가가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p28	"아 이런, 이런, 이런! 내 인생에서 이렇게 웃긴 장면은 처음 봐. 오 척, 너도 네 웃긴 꼴을 봐야 해." 칙은 웃었어요. 척은 자신의 새빨간 다리를 보고 손가락으로 붉게 젖은 엉덩이를 만져 봤어요. "웃기지 않아. 전혀 웃기지 않아." 척은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칙이 외쳤어요. 옆구리 배를 움켜쥐고 몸을 앞뒤로 흔들어 대면서요. "그 꼴을 봐야겠군. 윙윙 2호 저 녀석의 귀를 페인트칠해!" 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p29	윙윙 2호는 윙윙거리며 빛을 반짝였어요. 다시 잽싸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칙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칙이 외쳤어요. 칙은 도망치려고 애썼지만 윙윙 2호는 그에겐 너무 빨랐어요. 철퍽! 하고 한 귀가 빨개졌어요. 철썩! 하고 두 귀가 빨개졌어요. "하! 이제 저 녀석의 코를 페인트칠해!" 척이 외쳤어요. 윙윙 2호는 칙의 코를 칠하러 움직였어요. "오우! 오우, 오우, 오우!"
p30	그러자, 아주 천천히 척의 입꼬리가 실룩거리기 시작했어요. 척은 아주 작게 코웃음을 쳤어요. 척 또한 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 이런, 오 이런. 이런 끝내주는 기계가 있나! 이거 하나 꼭 장만해야겠어." 칙이 깔깔거렸어요. "그래, 우린 꼭 이게 있어야 해! 그리고 보드니 씨의 번 빵도 많이 사야겠어." 척이 웃었어요. 윙윙 2호는 '매력적인 찻집'의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어요. 보드니 씨와 로드니가 번 빵을 배달할 때, 그들은 일을 멈추고 윙윙 2호가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곤 했어요.
p31	"아주 끝내주는 기계야, 로드니. 잘했어." 보드니 씨가 말했어요.

	그 기계는 아주 성공적이어서 테이블과 의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칠했어요. 물론 때때로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칙 혹은 척을 칠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이들이 환호하고 손뼉치고 큰 소리로 웃게 했어요. 거의 매일, 찰스 형제의 매력적인 찻집에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칙과 척 자신들 만큼 더 크게 혹은 더 많이 웃지는 못했어요.
about the author **글쓴이의 말**	나는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책을 소리 내어 읽거나 연극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덕에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라디오와 무대, 텔레비전 대본과 열세 권쯤의 동화책을 썼어요. 나는 끈적끈적하고 시럽이 듬뿍 든 플랜 파이나 번 빵을 정말 좋아하지만, 무언가를 발명해 본 적은 전혀 없어요. 나는 크리켓과 관련된 모든 것과 독서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와 가족들이 사는 케임브리지 주변을 도는 것도 좋아해요.